

저는 담배가 싫습니다. 그 냄새도 싫고 연기도 싫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것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의 냄새와 연기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도 자신의 건강에는 나쁩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담배연기는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담배라는것은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것.

제가 저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할때 저의 친구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저의 친구에게 「나, 지금 식사중이니까 담배 피우지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아이는 곧 담배를 꺾습니다만, 또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너는 왜 담배를 피우는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은 「그건 습관이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배는 습관입니다. 한번도 담배를 피운적이 없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처음에 호기심, 혹은 멋있다고 생각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그것을 끊는 것이 어려운것 입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담배는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중독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젊은때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메스컴에서도 흡연장면 방영등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언젠가 모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